

[제2018-59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8. 7. 30(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홍보
연락처	323-936-3012/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 2018 K-POP World Festival LA본선대회 성황리 개최



- 
- ▶ 행사명 : 2018 K-POP World Festival
  - ▶ 일 시 :
    - LA 예선(온라인심사) : 2018.7.11(수) 2PM
    - LA본선대회 : 2018.7.28(토) 6PM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KBS America
  - ▶ 내 용 : 2018 K-POP World Festival LA 예선 행사 및 미주 본선 행사 개최
  - ▶ 문 의 : 323-936-3012 K-POP담당 Hannah Cho/ [hannah@kccla.org](mailto:hannah@kccla.org)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KBS America(사장 서현철)와 공동으로 7월28(토) 저녁6시 **'K-POP World Festival' 미주 LA지역 본선 대회**를 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K-POP World Festival 행사는 총61팀이 예선전(온라인 심사)을 거쳐 최종 17팀이 미주 지역 LA 본선대회에서 K-POP에대한 열정과 수준높은 실력들을 뽐내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K-POP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펼치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전해질 만큼, 마치 K-POP 아이돌 공연을 연상할 정도로 관객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 속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지난 5월 발표된 BTS의 'Fake Love' 안무를 완벽히 소화하는가 하면, 관객들은 Fake Love를 열창하며 다같이 따라하는 '싱얼롱(Singalong)' 타임이 자연스레 마련되었고, 최근 M net의 인기 방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알려진 '프로듀스 48'의 '픽미' 댄스곡을 귀엽게 소화하는 참가자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댄스를 같이 따라하는 모습등이 연출되며, 그 어떤 해보다도 경연자들과 관객이 하나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본 대회를 통해 댄스 우승자와 보컬 우승자는 LA지역 대표로 본국 KBS에 추천되며 최종 온라인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5일(금) 창원에서 개최되는 'K-POP 월드 페스티벌'에 미국 대표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예정이다.

댄스 최종 우승팀은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Fake Love'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마무리된 미네소타 출신의 혼성 7인조 그룹 MKDC팀이 선정되었고, 보컬 우승자는 윤종신의 '줄니'를 부르며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매너 등을 갖춘 캐나다 출신의 'Kyuri'가 최종 선발되었다. 3등 팀은

여성6인조 그룹인 I.TO.BE.팀이 (G)IDLE의 ‘LATATA’ 댄스를 선보이며 ‘Best K-POP Achievement Award’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최근 BTS의 열풍에서도 알수 있듯이 현지의 K-POP 참가자들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K-POP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식, 영화, 한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댄스우승팀 MKDC 인터뷰 내용: 케이팝은 색다른 장르이자 저희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저희팀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케이팝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세계 어디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보컬우승자 규리 인터뷰 내용: 10년 전에 동방신기를 통해서 케이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이 열리지만 너무 멀고 시차도 달라서 LA지역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음 무대에서는 한국어 가사를 더 공부하고 연습해서 듣는 사람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LA한국문화원과 KBS America는 앞으로도 K-POP 및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 현지인들에게 한류 문화콘텐츠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K-POP 활동과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끝.